

사회

교재 무단사용 1인당 3000~4000원 저작권료 부과 방침

지역 대학들 일괄 징수 반발

“근거 없이 일률적 부과는 세금 내라는 것”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화부)가 대학들이 국내외의 외부 저작물을 교재로 사용하는 대가로 학생 한 명당 연간 3000~4000원에 해당하는 저작권료를 물리는 방안을 추진하자 전남대와 조선대 등 지역 및 전국의 대학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저작물을 강의 교재로 쓰는 것에 대해 수업목적의 저작권 이용료를 물리기에 앞서 구체적인 금액 책정을 위해 대학들을 대상으로 두 차례 의견 수렴을 했다. 또 저작권료 징수기관인 한국복사전송권협회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가 관련 협상을 진행 중이다.

최종 확정될 전망이다. 저작권료를 4000원으로 추정할 경우, 전남대는 연간 1억2000만원을, 조선대는 1억여원을 납부해야 하며 나머지 4년제 대학들도 5000만원 내외의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전남대들도 적게는 1000만원에서 1500만원 정도의 저작권료를 내야할 것으로 전망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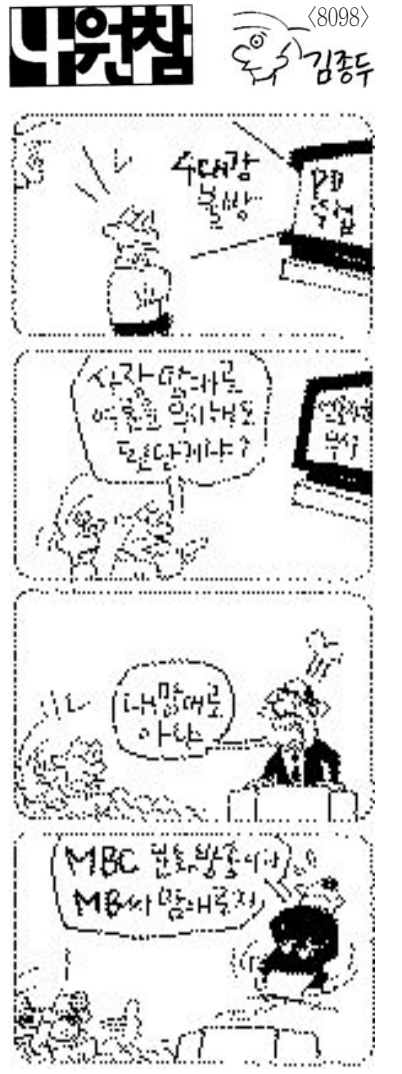
많은 경우 외부 저작물 이용 현황을 개별적으로 조사해 그에 따른 금액을 내야 한다. 전남대의 한 관계자는 “저작권 침해 정도가 대학이나 개인마다 제각각인 상황에서 일률적인 저작권료를 부과한다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면서 “좀 더 많은 의견 수렴과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여수 경관비리 수사 급물살

오현섭 전 시장 오늘 영장... 해외도피 측근 귀국

오현섭(60) 전 여수시장이 도피 60일 만에 자수한 데 이어 도피출국한 오 전 시장 측근이 조만간 경찰에 출두할 예정이어서 ‘여수시 야간경관 조명사업 비리’ 수사가 급물살을 타게 됐다.

경찰은 신고 당시 A의원을 추궁한 끝에 “주씨로부터 돈을 받았다”는 진술을 확보한 데 이어 최근 현직 의원 두 명을 참고인 자격으로 소환해 조사를 벌였다. 이로써 ‘야간경관 조명사업 비리’ 사건으로 경찰 조사를 받은 의원은 모두 3명으로 늘어났다.



경찰간부가 女기자 성추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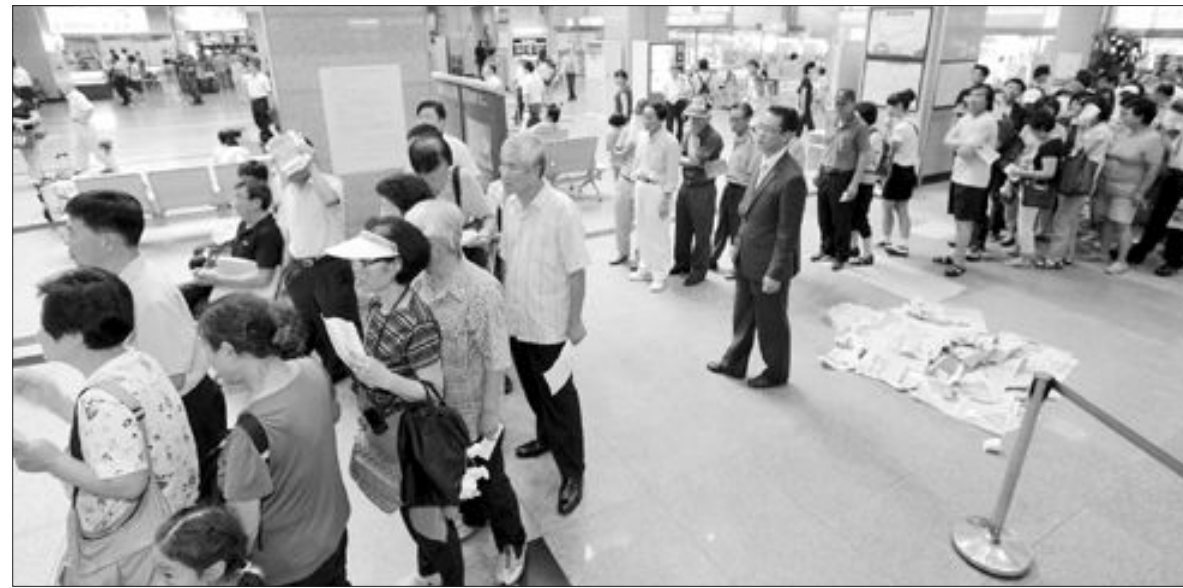
광주동부서 형사과장... 항의하자 “신고하려면 하라”

본보 기자 사건 취재 중

현직 경찰 간부가 을지훈련 기간 도중 경찰서에서 취재 중인 여기자를 성추행한 사건이 발생했다. 특히 이 간부는 술에 취해 경찰서에서 민원인이 지켜보는 가운데 추태를 부린 것으로 드러나 파문이 일고 있다.

들이 조사를 받고 있었다. 이날 취재를 끝낸 A기자가 사무실에서 나가려던 중 술에 취해 들어오는 조 과장과 마주쳐 인사를 건네자 조 과장은 양팔을 벌려 껴안는 자세를 취하며 달려들었다.

사무실에는 5명의 당직 형사들이 근무하고 있었지만, 말리는 직원은 없었다. 현장을 목격한 한 직원은 “(조 과장) 술 마시고 실수한 것인데, 이해해 달라. 가볍게 껴안았을 뿐”이라고 말했다.



추석 열차표 예매 행렬

코레일이 추석(9월 22일) 연휴를 앞두고 19일 실시한 KTX와 열차표 예매에서 연휴 승차권을 구입하려는 시민들이 광주역 대합실에 길게 줄을 서 있다. 이날 전국적으로 실시한 인터넷·창구예매는 시작한 지 10분 만에 끝났다.

서대석 전 전남대병원 감사 해임 부당

대법원 판결

참여정부 시절 임명돼 정권 교체 이후 해임된 서대석(50) 전 전남대병원 상임감사에 대한 해임조치가 부당하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1부는 19일 서 전 감사가 교육기술과학부를 상대로 낸 해임 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가량 남은 2008년 11월 법인카드를 부당하게 사용했다는 이유로 해임됐다. 서 전 감사는 참여정부 시절 청와대 비서관을 지냈으며, 후임 상임감사에 한나라당 당직자 출신인 ‘친정부 코드인사’라는 논란 속에 임명됐다.

윤정환 축구감독 역대 세금 감면

가산세 1억3000만원 취소 소송 승소

광주 금호고 출신으로 2002년 한일 월드컵 때 국가대표를 지내고 일본에서 지도자 생활 중인 윤정환(37·J2리그 그간 도스) 감독이 세무 당국과 소송을 벌여 역대 세금을 감액받게 됐다.

정 무효확인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는 “국세청이 프로야구 선수의 전속계약금을 2003년에는 기타소득으로 취급하다 다음해에 이를 사업소득으로 보도록 예규를 변경했고 윤 감독은 전속 계약금을 기타소득으로 보고 2003년도도 소득을 신고했

다”며 “이는 법률을 모르거나 오해한 것이 아니라 세법해석에 대입이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세무서의 견해와 입장을 달리했다는 이유로 가산세 부과 요건이 있다고 보는 것은 납세자에게 너무 가혹하며 윤 감독이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의무를 게을리했다고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덧붙였다.

안타까운 황혼 자살

노인들 병고·가난·외로움에 음독 등 잇따라

최근 광주·전남지역에서 부양 문제와 병고·가난·외로움 등 노년 고통을 이기지 못한 황혼 자살이 잇따르고 있다. 19일 오후 1시40분께 진도군 진도읍에 사는 조모(81)씨가 자신의 집 안방에서 부인 최모(80)씨와 함께 극약을 마시고 쓰러져 있는 것을 아들이 발견, 경찰에 신고했다.

겨졌으나 조씨는 숨지고, 최씨는 입원 치료를 받고 있다. 이날 생일을 맞은 조씨는 찾아오는 사람이 없는데다, 최근 자식들 간에 부모 봉양을 놓고 갈등을 빚자 고민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조씨의 가족과 마을 주민들을 상대로 정확한 원인을 조사 중이다.

(76)씨가 자신의 집에서 머리에 피를 흘린 채 쓰러져 숨져있는 것을 아들(50)이 발견, 경찰에 신고했다. 김씨는 7년 전부터 중풍을 앓아 왔으며 5년 전에는 다리마저 크게 다쳐 거동이 불편해지자 가족들에게 “힘들어서 죽고 싶다”는 말을 자주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김씨가 술을 마시고 자해한 뒤 둔기로 머리를 수차례 때려 자살한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지방경찰청은 19일 병역 기피 의혹으로 내사를 받은 가수 MC몽(본명 신동현·31)을 조사. ○소속사에 따르면 MC몽은 이날 오전 7시 변호사를 대동하고 경찰에 나와 병역기피 의혹과 관련된 조사를 받았다는 것. ○경찰은 MC몽이 생리를 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병역을 면제받았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내사에 착수했는데, 소속사 관계자는 “병역면제처분 과정에서 의사의 불법 치료 행위는 없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경찰 조사를 받은 MC몽은 20일 KBS 2TV ‘해피선데이-1박2일’ 녹화에는 정상적으로 참여할 예정이다.

Advertisement for Golfzon, featuring a large image of the golf course entrance and a blue banner with the text 'GOLFZON 광주 최고시설 스크린골프장' (Golfzon, the highest quality facility in Gwangju, featuring a screen golf course). The banner also includes the Golfzon logo and contact information.